

친구없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 외톨이 질문지의 개발 및 타당화

김 은 정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외톨이)을 선별해낼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친구관계 연구 문헌, 임상 관찰 및 관련 질문지들을 통해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문항들을 표집한 뒤,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정을 거쳐 예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예비질문지를 389명의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요인분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16문항을 선정하여 '외톨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외톨이 질문지는 친구들과의 교류 부재, 친구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 사회적 유능감의 3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외톨이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는데, 요인별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내적합치도가 높았고, 친구관계 질 질문지 및 사회적 기술 질문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거명법 및 사회측정법에 기반하여 분류된 집단별로 외톨이 질문지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외톨이 질문지는 친구없는 청소년들을 선별하는데 있어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톨이 질문지, 친구, 청소년, 개발,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은 정 /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 / FAX : 02-2259-7680 / E-mail : kejwy@hanmail.net

청소년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관계축으로 삼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나 친척,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친구들과의 교제는 개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Asher & Parker, 1989), 친한 친구와의 우정은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Erwin, 1998; Newcomb & Bagwell, 1996).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은 학업부진, 장기적인 학습장애, 잦은 결석, 등교거부, 왕따, 학원폭력, 자퇴, 퇴학 등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을 보인다(Kupersmidt, 1983; Parker & Asher, 1987; Ulmann, 1957; Seigel & Griffin, 1983). 또한 많은 임상가들은 이런 청소년들이 행동문제, 비행, 약물남용, 우울증, 자살, 정신분열증의 초기 증후 등과 같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문제는 더 나아가 성인기의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일으킨다. 친구가 없었던 청소년들은 배려심이 부족하고 개인주의적이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협력이나 양보를 요구하는 사회생활과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혼생활의 적응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김형주, 이경아, 최영순, 1997). 또한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의 어려움이 없었던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학업성취가 부진하고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Woodward & Fergusson, 2000). 성인기 적응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학업성취율이나 자존감보다는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성인기 적응 여부를 더 잘 예언해주며,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인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Ginsberg, Gottman, & Parker, 1986).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뿐 아니라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친구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감소되

는 추세이다. 핵가족 및 소가족화, 잦은 가구 이동, 친척 및 이웃들과의 교류감소로 인해 가족의 고립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부모의 과잉보호, 개인주의 경향의 증대, 경쟁적인 교육풍토,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친구가 없는 외톨이 청소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친구가 없는 외톨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톨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친구가 없는 외톨이 청소년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런 청소년과 부모의 특성을 규명하며 친구관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을 ‘외톨이’로 정의하고 이런 아이들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런 외톨이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이 없이 혼자서 지내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교 거부 등의 학교부적응 문제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함으로써 적절한 사회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심리적 괴로움과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친구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이들의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도의 첫 단계는 친구가 없는 아이들을 적절히 파악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들과 상호작용없이 혼자서 지내는 외톨이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친구관계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 개인의 친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측정한 ‘사회측정법’을 사용해왔다. ‘사회측정법’은 거명법을 통해 또래집단의 친구관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측정하여 ‘지위화’하는 것이다. 사회측정적 기법들의 기원은 1934년 Moreno가 발표한, “아동 발달에 대한 사회측정적 판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Moreno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회적 선호-좋아함(liking) 대 싫어함(disliking)' 차원에서 '매력적인(attractive)'과 '거부당하는(rejected)'이라는 두 가지 축을 제시하였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활발히 진행된 사회측정적 연구들은 Moreno의 기법을 차용하여 또래 집단에서 좋아하는 친구들을 거명하도록 하고 각 아동이 친구들로부터 거명받은 횟수를 통해 또래집단내 개인의 친구관계를 측정하였다. 60년대 이후 한 동안 저조했던 사회측정적 방법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단일 차원 기법을 넘어선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Peery(1979)는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와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의 두 차원에 기반한 사회측정적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한 '사회적 영향력' 차원은 1950년대 Dunnington이 긍정적 거명 점수와 부정적 거명 점수를 합산하여 만들어낸 '주목(notice)' 차원을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좋아함-싫어함'이라는 단일 차원에 기반하여 아이들을 '인기(popular) 집단'과 '거부(rejected) 집단'으로만 분류해왔다면, Peery(1979)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또래 관계를 판단하는 준거로 제안함으로써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즉 '무시(neglected)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사회측정법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이후 많은 분류 체계가 개발되었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Coie와 Dodge 및 Coppotelli(1982), 그리고 Newcomb와 Bukowski(1983)의 체계이다. Coie 등(1982)의 체계에서도 각 학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거명받은 횟수(Most Liked-ML)와 '가장 싫어하는 친구'로 거명받은 횟수(Least Liked-LL)를 학년 단위로 표준화하여 사회적 영향력(SI) 차원과 사회적 선호도(SP) 차원을 산출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후 Coie와 Dodge(1988)는 이 방법을 보완하여 집단 분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아이들을 친구관계 양상에 따라 5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인기(popular) 집단, 거부(rejected) 집단, 무시(neglected) 집단, 논란(controversial) 집단, 평균

(average) 집단.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하위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하위유형화 시도 중 여러 연구자들간에 가장 일관되게 지지를 받는 사회측정적인 분류방법은 '거부 집단' 대 '무시 집단' 분류이다(Asher, 1990; Coie, Dodge, & Kupersmidt, 1990; Ramsey, 1991). '거부 집단'은 친구들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고, '무시 집단'은 친구가 별로 없지만 따돌림을 받지 않고 친구들이 특별히 싫어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울릴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지내는 외톨이 청소년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에서 보자면, 거부 집단은 친구들로부터 명백히 따돌림을 받는 집단으로, 이런 거부 집단만으로는 명백히 따돌림을 받지 않지만,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외톨이 아이들을 충분히 파악해낼 수 없다.

무시 집단은 본 연구의 외톨이 집단에 가장 가까운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무시 집단은 성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무시 집단의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친구와의 교류를 적게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친구가 없는 외톨이 청소년들을 파악해내는 측정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우선 친구가 없는 아이들에 관한 실증적 보충 자료로 무시 집단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런 무시 집단과 친구가 없는 외톨이 집단을 동등하게 보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Dodge, Schlundt, Schocken과 Delugach (1983)은 사회측정법에 의했을 때 '무시당하는(neglected)' 집단으로 분류된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 들어가 어울리고자 할 때 보이는 행동 양식을 관찰한 결과, 이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또래 관계에 합류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기다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또래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물론 명백하게 따돌림을 받는 집단에 비해 이들에 대한 친구들의 거부는 지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또래 집단에 들어가더라도 조용하고 특정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종종 무시당하는 경향을 보인다(Ramsey, 1991).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이들이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아이들은 친구들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에 대해 다소 무감한 경향을 보인다. 사회측정법에 의거, '인기(popular)' 집단, '거부(rejected)' 집단, 그리고 '무시(neglected)' 집단을 구별한 후, 각 집단의 아이들에게 비디오테잎을 보여주고 비디오에 나오는 아이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구별해 보도록 하는 과제를 내주었을 때 '무시' 집단의 수행력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Ramsey, 1991)는 이 집단의 아이들이 친구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무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거의 내보이지 않는 경향성(Sroufe & Fleeson, 1986)은 주변 친구들로 하여금 어떻게 계속 상호작용해야 할지 난감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생동감이 없고 만났을 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이들을 회피하고 이들은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적 과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장차 발달적 부적응이 나타날 위험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연구자간 논란이 많다(Asher & Wheeler, 1985; Bovin & Begin, 1989; Coie & Kupersmidt, 1983; Rubin, LeMare, & Lollis, 1990). 장기종단적 연구에서 Rubin(1985)은 유치원에서 위축된 아이들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생활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반드시 따돌림을 당하는 위험집단이 된다고 할 수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위축 행동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을 반영하는, 따라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음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축된 행동이 아동기 중기까지 계속된다면 이는 보다 심각한 적응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잘 탐색하지 못함으로써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을 잘 익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비교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위험이 높다(Rubin, Hymel, & Mills, 1989).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측정법을 토대로 무시 집단의 아이들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사회측정법에 의한 무시 집단을 친구가 없는 외톨이 집단과 동등하게

보는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사회측정법의 무시 집단의 성격이 연구자들간에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무시 집단이 평균 청소년보다 또래와 상호작용이 적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만큼 친구로부터 초대받는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oie & Kupersmidt, 1983; Dodge, Coie, & Brakke, 1982). 따라서 외톨이 집단을 잘 변별해낼 있는 측정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측정법에 의한 친구관계 측정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 첫째, 학급 전체의 거명법에 기반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계산방법이 까다롭다. 사회측정법에서는 모든 학급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아이들과 싫어하는 아이들을 거명하게 하고 거명빈도를 계산하여 학급별, 학년별 표준점수를 산출하여야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싫어하는 아이를 거명하게 하는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평가도구로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 둘째, 이 방법은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을 어떻게 인식하는나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아동이나 청소년 자신이 친구관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한다. 셋째, '인기 집단'과 '거부 집단'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지만, '무시 집단'의 성격이 연구들간에 일관되지 않고 위험 집단으로서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넷째, 사회측정적 절차에서는 거명의 숫자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무시 집단의 분류만으로는 사회적 선호성이나 호감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즉 무시 집단의 아이들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사회적 영향' 정도를 개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Asher & Coie, 1990). 따라서 친구와 상호작용이 없는 외톨이 집단을 변별해내는대는 예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측정적 방법의 한계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외톨이의 특성을 지닌 아이들, 즉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며 이로 인해 심리적 괴로움을 겪는 아이들을 선별해내기 위한 보다 적절한 도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 집단에 주목하여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질

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외톨이 청소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특성을 명세화하였고 그러한 특성을 잘 반영해준다고 생각되는 예비 문항들을 친구관계 문헌,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임상 관찰 및 기존의 질문지들을 참고하여 표집하였다. 다음으로 표집한 문항들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정과 일련의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외톨이 질문지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톨이 질문지의 각 요인별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톨이 질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고 관련 질문지들과의 상관을 알아보았으며 거명법 및 사회측정법을 통해 분류된 집단별로 외톨이 질문지 점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 법

대 상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89명(남자 349명, 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외톨이 예비질문지와 이 질문지의 타당도 검사를 위해 추가된 질문지를 함께 실시하였다.

도 구

외톨이 질문지. 친구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다음의 절차를 통해 외톨이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척도 제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친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임상관찰에 기초하여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특성을 명세화하였다.

우선 현상적으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학교 생활이나 방과후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

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외로움을 느끼며(Asher & Wheeler, 1985),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한다(Ramsey, 1991). 또한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Wheeler & Ladd, 1982),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기지각이 부정적이다(Ramsey, 1991).

외톨이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특징을 위와 같이 명세화한 후, 두 번째 단계로 이러한 내용을 잘 반영해준다고 생각되는 예비 문항들을 친구관계 문헌과 다음과 같은 기존의 질문지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① 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CLQ): Asher와 Hymel 및 Renshaw(1984)가 아이들이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 ②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PSR): 1983년 Turner와 Frankel 및 Levin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질문지(Fischer & Corcoran, 1994)로, 가족들로부터의 지지와 친구들로부터의 지지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RULS): Russell과 Peplau 및 Cutrona(1980)가 기존의 외로움 측정 도구들이 가진 단점들, 즉 반응 편파나 사회적 바람직성, 불명료함 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제작한 질문지 ④ Index of Peer Relations(IPR): Hudson(1992)이 아동의 친구관계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질문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 문항들의 내용을 수정, 평정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다른 문항과 중복된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예비 문항들은 모두 34개였다.

마지막으로 389명의 청소년들에게 34개의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이 본인과 일치하는 정도를 Likert형의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친구관계의 질 질문지(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FQQ).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의 질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Parker와 Asher(1993)가 제작한

것이다. 총 40문항이며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갈등과 불신', '도움과 길잡이', '인정과 돌봄', '갈등 해결', '우정과 놀이', '긴밀한 상호교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먼저 기입하도록 한 후 그 친구를 옆두에 두고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상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한국판 FQQ의 번역은 임상심리학 박사과 사회복지학 석사가 맡았으며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5년여 거주한 영문학 박사가 감수하였다. 한국판 FQQ의 요인분석 결과, 원래 척도와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왔다. '갈등과 불신', '도움과 길잡이', '긴밀한 상호교류'는 Parker와 Asher(1993)의 원래 척도와 유사하게 각각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인정과 돌봄', '우정과 놀이'가 한 요인으로 묶였고 '갈등해결'에 속하는 문항들이 2개의 요인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한국판 FQQ에서는 각각의 요인을 갈등과 불신($\alpha=.721$), 도움과 길잡이($\alpha=.892$), 긴밀한 상호교류($\alpha=.888$), 정서적 지지와 즐거움($\alpha=.908$), 갈등해결 I($\alpha=.466$), 갈등해결 II($\alpha=.830$)로 다시 명명하였다.

사회적 기술 질문지. Gresham(1988)에 의해 개발된 SSRS(Social Skills Rating Scale)는 교사, 학생, 부모를 위한 세 가지 유형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3세~18세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원검사는 협동성, 주장성, 책임감, 공감, 자기조절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되어있고, 학생용 검사는 협동성, 주장성, 공감성, 자기조절의 4가지 요인으로만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요인은 빈도와 중요성의 두 영역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주로 빈도만이 사용되고 있다. SSRS 학생용 검사의 신뢰도(Chronbach α)는 .83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영주(1999)가 번안, 수정, 요인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영주(1999)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는 협동성(13문항), 공감(13문항), 주장성(7문항), 자기조절(6문항)의 4가지였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협동성이 .82, 공감이 .80, 주장성이 .72, 자기조절이 .5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외톨이 집단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공감성과 주장성, 자기조절의 세 요인만을 포함시

켰다. 요인별 측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감성' 요인은 주변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타인의 갈등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또래간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한다. '주장성' 요인은 자신이 먼저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자기조절' 요인은 친구들의 놀림이나 이성과의 갈등, 어른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항상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요인별 점수와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다.

질 차

외톨이 질문지와 친구관계의 질 질문지(FQQ), 사회적 기술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질문지 묶음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반 친구의 이름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거명법): (1)우리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3명), (2)우리반 친구 중에서 가장 함께 앉고 싶지 않은 친구(3명) (3)늘 혼자 노는 친구(3명까지)

결 과

피검자 전체가 보인 외톨이 질문지 총점의 평균은 25.70이며, 표준편차는 5.94였다. 이 검사의 문항-총점 상관계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외톨이 질문지의 신뢰도

외톨이 질문지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831이었다. 세 요인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1요인이 .80, 2요인이 .80, 3요인이 .56이었다. 요인별로 1요인의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23~.51이었고 2요인은 .31~.67, 3요인은 .30~.38이었다.

외톨이 질문지의 타당도

외톨이 질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 구조를 살펴보고, 둘째 친구관계의 질 질문지(FQQ) 및 사회적 기술 질문지와 상관을 살펴보고, 셋째 거명법과 사회측정법에 기반하여 집단을 분류한 뒤 집단별 외톨이 질문지 점수를 비교하였다.

1) 요인분석

척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34개의 예비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Maximum Likelihood

방식에 의해 요인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SPSS의 기본방식으로 요인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할 경우 요인수가 10개가 나타났으나 Scree Plot을 통해 보았을 때 요인수는 4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해 준 후 다시 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4번째 요인의 경우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 제 4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과, 다른 3개의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중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고 총 16개의 문항에 대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6개의 문항에 대하여 역시 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수

표 1. 외톨이 질문지 최종 16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1.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낀다	.745	.161	.204
2. 소풍이나 체육대회를 걱정한다	.646	.149	.140
3. 체육시간, 단체활동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620	.089	.186
4.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568	.235	.162
5. 우리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36	.236	.215
6. 점심시간에 혼자서 점심을 먹는다	.454	.075	.158
7. 내가 부탁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이유없이 거절한다	.369	.114	.114
8. 나는 친구가 많다(-)*	.243	.757	.106
9.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271	.672	.265
10.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 한다(-)*	.190	.656	.198
11.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이다(-)*	.240	.650	.081
12. 나는 우리 반에서 인기가 있다(-)*	.014	.605	.086
13.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106	.375	.047
14. 친구집에 놀러가는 일이 없다	.172	.121	.610
15.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134	.100	.484
16.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없다	.207	.163	.448

(-)* : 나머지 문항들과 달리 반대로 채점되는 문항들이다.

1) 요인 1의 고유치는 2.64이고, 외톨이 질문지 총점 변량의 16.49%를 설명하였다.

2) 요인 2의 고유치는 2.62이고, 외톨이 질문지 총점 변량의 16.38%를 설명하였다.

3) 요인 3의 고유치는 1.11이고, 외톨이 질문지 총점 변량의 6.94%를 설명하였다.

표 2. 요인상관행렬

요 인	요인 1 (친구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	요인 2 (사회적 유능감)
요인 2 (사회적 유능감)	.437**	
요인 3 (친구들과의 교류 부재)	.377**	.327**

** $p < .01$

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요인에 명료하게 부하되는 3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다. 이 요인구조는 1348명의 중고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000)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요인구조계수행렬, 요인변량 %와 요인상관행렬이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낀다', '소풍이나 체육대회를 걱정한다',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와 같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친구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요인 2에는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 한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이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사회적 유능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친구집에 놀러가는 일이 거의 없다',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다'의 세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친구들과의 교류 부재'로 명명되었다. 각 요인별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요인 1과 요인 2가 각각 전체 변량의 16.49%, 16.38%로 비슷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요인 3의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6.94%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 요인간 상관은 표 2와 같다. '사회적 유능감'을 반영하는 요인 2는 역으로 점수화되었는데, 요인 1, 요인 3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친구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을 반영하는 요인 1과 '친구들과의 교류 부재'를 반영하는 요인 3 사이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외톨이 질문지에서 나타난 3요인 구조는, 학교 생활이나 방과 후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이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외톨이 청소년들의 현상적인 특성이 질문지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기존의 친구관계 문헌들에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특성으로 제시한 내용들, 즉 또래 집단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외로움을 느끼고(Asher & Wheeler, 1985)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며,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Wheeler & Ladd, 1982)는 내용들과도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톨이 질문지의 구성타당도가 양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외톨이 질문지와 다른 질문지들간의 상관

외톨이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FQQ 및 사회적 기술 질문지와 외톨이 질문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FQQ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FQQ 총점('갈등과 불신'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역산) 및 6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갈등과 불신' 요인과는 정적 상관을, 그 외 나머지 요인들, 즉 '도움과 길잡이', '인정과 돌봄', '갈등 해결', '우정과 놀이', '긴밀한 상호교류'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외톨이 질문지가 친한 친구가

표 3. 외톨이 질문지와 FQQ와의 상관계수

	FQQ 총점	도움과 길잡이	긴밀한 상호 교류	정서적 지지와 즐거움	갈등과 불신	갈등해결 I	갈등해결 II
외톨이 질문지	-.40**	-.34**	-.46**	-.33**	.14**	-.32**	-.26**

** $p < .01$

표 4. 외톨이 질문지와 사회적 기술 척도와의 상관계수

	주장성	공감성	자기조절
외톨이 질문지	-.55**	-.46**	-.13**

** $p < .01$

별로 없고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선별하고자 하는 질문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외톨이 질문지의 타당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 질문지의 경우, 세 하위척도 즉 주장성($r = -.55, p < .01$), 공감성($r = -.46, p < .01$), 자기조절($r = -.13, p < .01$) 모두에서 외톨이 질문지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끄는 면이나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면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집단간 비교

외톨이 질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세번째 단계로, 또래친구들로부터 외톨이로 인식되는 아이들과 또래친구들에게 인기 아이들, 그리고 평균적인 아이들 간에 외톨이 질문지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보았다. 집단 분류를 위해 기존의 사회측정법을 사용하였는데, 인기 집단과 평균 집단의 경우 친구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그 집단의 성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측정법을 통해

선별해내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외톨이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정법이 필요하였다. 사회측정법의 분류체계에서 '무시 집단'이 본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외톨이 집단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집단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하고 연구마다 일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외톨이 집단을 선별하기 위하여 또래 친구들로 하여금 반에서 '늘 혼자 노는 친구'를 3명까지 적도록 한 다음, 각 학생당 또래 친구들로부터 '늘 혼자 노는 아이'로 거명받은 횟수를 학년 별로 표준화하여 점수화하고, '늘 혼자 노는 친구'로 거명받은 횟수에 대한 표준점수가 1.0보다 큰 학생들을 외톨이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인기 집단과 평균 집단의 분류는 사회측정법에 의거하였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로 하여금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3명씩 적도록 하였다. 각 학생별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거명받은 횟수(Most Liked-ML)와 가장 싫어하는 친구로 거명받은 횟수(Least Liked-LL)를 학년 단위로 표준화하여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이 두 표준화 점수(standardized ML, standardized LL)를 근거로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SP) 차원을 산출하였다. $SP = \text{standardized ML} - \text{standardized LL}$. 이렇게 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인기 집단에는 사회적 선호도 점수(SP)가 1보다 크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거명받은 횟수에 대한 표준점수가 0보다 크며 가장 싫어하는 친구로 거명받은 횟수에 대한 표준점수는 0보다 작은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평균 집단은 사회적 선호도 점수(SP)가 -0.5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표 5. 외톨이 집단, 인기 집단, 평균 집단의 외톨이 질문지 점수 평균, 변량분석, Duncan 검증결과

변 인	외톨이 집단	인기 집단	평균 집단	F	Duncan
	(n=74)	(n=137)	(n=225)		
외톨이 질문지	36.86	23.88	24.76	162.31***	1) 2, 3
점수	(8.11)	(4.79)	(4.65)		

1은 외톨이 집단, 2는 인기 집단, 3은 평균 집단

*** $p < .001$

이렇게 구분한 집단별로 외톨이 질문지에서 점수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433)=162.31, p < .001$). 집단별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외톨이 집단은 인기 집단과 평균 집단 모두에 비해 외톨이 질문지에서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고립 경험과 외로움 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외톨이 질문지가 실제 또래친구들로부터 외톨이라고 인식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잘 변별해 줄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외톨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질문지를 제작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해진 사회측정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계산방법이 까다롭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인기 집단’과 ‘거부 집단’은 그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무시 집단’의 경우 위험 집단으로서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따돌림을 받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면서 이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사회측정법으로는 선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사회측정법이 위와 같은 한계를 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특히 명백한 따돌림을 받지 않는더라도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며 이로 인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집중하여 이러한 아이들을 진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친구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해진 사회측정법이 또래 집단에서의 친구관계에 따라 개인을 사회적으로 ‘지위화’하는 것이었다면, 본 연구

에서는 질문지의 개발을 통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을 진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친구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들 및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학자의 임상관찰에 근거하여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특성을 명세화하였다. 다음으로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 질문지들을 참고로 하여 예비문항을 만들었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거한 뒤 예비문항 총 34개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6문항을 선택하였다. 최종 16문항에 대한 재요인분석 결과, 문항들은 비교적 3요인으로 명확하게 묶였는데, 세 요인은 각각 ‘친구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 ‘사회적 유능감’, ‘친구들과의 교류 부재’로 명명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 혼자 노는 경향이 높다(Dodge, 1983). 이러한 경향에는 기질적인 수줍음과 같은 내적인 원인이 작용할 수도 있고(Rubin, LeMare, Lollis, 1990), 사회계층적 배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Coie & Koepl, 1990). 초기의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고립감을 느끼며(Rubin, Hymel, & Mills, 1989), 대인관계 문제 해결 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며(Kurdek & Krile, 1982)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볼 때 외톨이 질문지의 3요인 구조는 적절한 요인분석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 외톨이 질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와 요인별 내적합치도,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알아본 결과, 문항 전반과 세 요인 모두 내적 일관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았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질문지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친구관계의 질 질문지(FQQ)와의 상관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 즉 갈등과 불신, 도움과 길잡이, 긴밀한 상호 교류, 정서적 지지와 즐거움, 갈등해결 I, 갈등해결 II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맺는 관계를 일대일의 양자관계 차원과 개인 대 집단 관계 차원에서 살펴본다면(Ladd, G. W., & Kochenderfer, 1996), 친구관계의 질 질문지(FQQ)는 일대일의 양자관계 차원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질문지라 할 수 있다. 친구관계의 질 질문지(FQQ)와 외톨이 질문지의 유의미한 상관은 외톨이 질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청소년들이 일대일 관계에서 깊이있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타인을 돕거나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이 부족하고(한영주, 1999), 또래 관계에 편안하고 쉽게 합류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며(Dodge, Schlundt, Schocken, & Delugach, 1983), 정서적 교류의 깊이가 부족하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기술이 낮다(Rubin, Hymel, & Mills, 1989)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다.

사회적 기술 질문지와 상관에서도 하위요인인 주장성, 공감성, 자기조절 모두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친구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비효과적이라고 보고한다(Catrell & Prinz, 1985; Coie & Dodge, 1988; 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이들은 또래 집단에 어울리고자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상황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행동양상을 보이며(Ramsey, 1991), 타인의 요구나 관심, 감정상태에 공감하는 능력이 낮고 상호작용을 하는 타인에게 부적절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구본용, 1998). 따라서, 외톨이 질문지와 친구관계 질 질문지, 사회적 기술 질문지와 유의미한 상관은 외톨이 질문지가 친한 친구가 없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적절히 선별해낼 수 있는 검사도구임을 시사한다.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또래친구들로부터 외톨이로 인식되는 아이들과 또래친구들에게 인기 아이들, 그리고 평균적인 아이들간에 외톨이 질문지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기 집단과 평균 집단은 사회측정법에 의거하여 선별하였고, 외톨이로 인식되는 아이들은 또래친구들로부터 반에서 '늘

혼자 지내는 아이'로 거명받은 횡수를 표준점수화하여 그 점수가 1.0보다 큰 아이들을 선별하였다. 집단별 외톨이 질문지에서의 점수를 살펴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외톨이 집단이 인기 집단과 평균 집단에 비해 외톨이 질문지에서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톨이 질문지의 타당도를 입증해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sher와 Hymel 및 Renshaw(1984)는 아동의 외로움 질문지(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CLQ)를 제작한 바 있으나 이는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외로움을 측정하였다. 반면, 기존의 친구관계 연구들에서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진 사회측정법은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함으로써, 아동이나 청소년 자신이 친구관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외톨이 질문지는,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고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거명법에 의한 사회측정법이, 명백히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지만 친구가 없이 혼자 지냄으로써 위험집단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아이들을 적절히 선별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는 청소년들을 친구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장차 부적응적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위험 집단으로 파악하고 이를 '외톨이'로 보다 분명하게 개념화하였고 장차 이들의 특성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외톨이 질문지는 향후 친구관계 연구들에서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청소년들을 선별해내는 평가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파악하는데 진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치료 계획을 세우고 상담 및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에서 제작한 외톨이 질문지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이는 사회측정법의 복잡하고 일방적인 거명법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도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만 의존하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톨이 질문지와 함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직접관찰법 등의 객관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집이 서울지역 중고생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질문지의 타당화를 위해 실시한 사회측정적 거명법에서 학생들이 주변의 친구나 선생님을 의식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세부적 조사방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표집을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외톨이 질문지의 추가적인 타당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1998).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 (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김형주, 이경아, 최영순. (1997). 친구관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한영주. (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Parker, J. G. (1989). The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s problems in childhood. In B. H. Schneider, G. Attili, J. Nabel, & R. P. Weissberg(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pp. 5-23). Amsterdam: Kluwer Academic Publishing.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7-1464.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53-27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ivin, M., & Begin, G. (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591-596.
- Carrell, V. L., & Prinz, R. J. (1985). Multiple perspectives of rejected, neglected, and accepted children: Relation between sociometric statu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84-889.
- Coie, J. D., & Dodge, K. A. (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oie, J. D., & Koeppel, G. K. K. (1990). Adapting intervention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children.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309-33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1.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Dodge, K. A., Coie, J. D., & Brakke, N. P. (1982). Behavior patterns of socially rejected and neglected preadolescents: The roles of social approach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389-410.
- Dodge, K. A., Schlundt, D. C., Schocken, I., & Delugach, J. D. (1983).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The role of peer group entry strategies. *Merrill-Palmer Quarterly*, 29, 309-336.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Routledge.
- Fischer, J., & Corcoran, K. (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Inc.
- Ginsberg, D., Gottman, J. M., & Parker, J. G. (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J. M. Gottman & J. G. Parker (Eds.), *Conversations of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ment* (pp.3-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sham, F. M. (1988). Social skills: Conceptual and applied aspects of assessment, training, and social validation. *Handbook of Behavior Therapy in Education*(pp. 523-546).
- Kupersmidt, J. (1983) Predicting delinquency and academic problems from childhood peer status. Pap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591.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school transi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pp. 289-3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comb, A. F., & Bukowski, W. M. (1983). Social impact and social preference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peer group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56-867.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r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ry, D. G., Willard, J. C.,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amsey, P. G. (1991). *Making friends in school: Promoting peer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Rubin, K. H., Hymel, S., & Mills, R. S. L. (1989). Sociability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Stability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57:2, 237-255.
- Rubin, K. H., Le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217-2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eigel, L. J. & Griffin, N. J. (1983). Adolescents' concepts of depression among their peers. *Adolescence*, 18, 965-973.
- Ulmann, C. (1957) Teachers, peers, and test as predictors of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 257-267.
-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95-805.
- Woodward, L. J., & Ferguson, D. M. (2000). Childhood relationship problems and later risks of educational under-achieve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191-201.
- 원고접수일 : 2001.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1. 7. 20
게재결정일 : 2001. 8. 1

Identifying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iettolie Scale

Eun-Jung Kim

Samsung Institute of Social Psychiatry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strument to identify the withdrawn adolescents without peers(Oiettolie) and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In Study 1, based on the literature, clinical observations, and the related inventories, a pool of preliminary items were sampled and 34 items were initially select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content validity. Then Oiettolie Inventory(OI) with 16 items was constructed using a series of factor analyses.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it had three factors: 'Isolation from peers and loneliness', 'Social competence', 'Absence of interactions with peers'. Study 2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I. The OI was reliable in terms of item-total correlations and internal consistency. The OI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6 elements of friendship and social skills. Adolescents were classified into sociometric status groups(Oiettolie group; popular group; average group) on the basis of nomination scores, and the OI scores of Oiettolie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I scores of popular and average group. In conclusion, the OI appears to be a highly reliable and valid measure to identify the withdrawn adolescents without peers(Oiettoli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Oiettolie Scale, peers, adolescence,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